

김영록 지사 “총선 앞두고 야권 분열 바람직하지 않아”

“한마음으로 선거 임해도 부족할 판”... 민주당 중심 단합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 창당과 관련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중심으로의 단합을 강조하며 야권 분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전 대표의 민주당 탈당과 신당 행보에 대한 호남 정치권과 총선 출마예정자들의 비판 속에서 호남지역 현 광역단체장이 처음으로 야권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김 지사가 전남 도백으로서 민주당 분열에 대해 우려하는 지역 민심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24일 전남도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치적 진로를 묻는 질문에 “시기상조”라고 단언한 뒤, 대신 신당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신당이 생겨나고 있다”며 “다당제, 양당제 중 뭐가 좋을지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평상시, 즉 비선

거절에 하는 얘기고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분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뜻을 함께 모아야 부족한 상황”이라며 “야당이 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신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도를 보면 상당히 낮은 거 같다”며 “(지금은) 민주당을 위주로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이낙연 신당 등으로 인한 민주당의 분열을 막고, 야권의 경우 민주당 중심의 단일대오로 4월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선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표명하자 부정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에도 “항상 당내에서 싸워 뜻을 관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당을 나가서 투쟁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새 PI 선포식에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새 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총선 10호 인재 김남근 변호사 영입

참여연대·민변 부회장 출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총선 10호 인재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김남근(60) 변호사를 선정했다.

김 변호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노동 분야의 민생과제 발굴을 위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기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서울법대 재학 시절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에 참여하다 남영동 옛 대공본실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

차 갱신제도 등 민생 관련 입법 운동을 추진했으며, 2009년 야간집회 위헌소송 변호인단에 동참해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 냈다고 민주당은 소개했다. 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부회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는 전문성뿐 아니라 정책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이라며 “민생 현장을 보듬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불교정한 경제 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민생 개혁 연합정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새 로고 공개... ‘민주·미래·희망’ 삼색 깃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8년 만에 새로운 당 로고와 상징(PI·Party Identity)을 선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새 PI 선포식을 열었다.

민주당의 이전 PI는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뒤인 2016년 1월에 만들어졌다. 기존 PI에 있던 ‘민주주의’를 형상화한 마음(心) 모양은 새 PI에서 사라졌다. 당명 중 ‘더불어’는 이전보다 작아졌고, ‘민주당’

은 더 부각되도록 굵어진 필체를 사용했다. 새 PI에는 세 가지 색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삼색 깃발이 들어갔다.

파랑, 보라, 초록색은 각각 민주, 미래, 희망을 상징하며 펼쳐지는 깃발 모양은 시대에 맞게 다양한 가치를 품는 민주당의 모습을 뜻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새 PI는 이날 선포식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연합뉴스

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 “비전·가치 동의”

제3지대 ‘빅텐트’는 무산 가능성

한국회의당 양향자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하면서 ‘제3지대 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 등 신당과의 추가 합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제3지대 빅텐트’를 완성하면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각 진영의 입장차가 큰 만큼 ‘빅텐트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이고, 한국회의당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양 대표는 개혁신당의 미래비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언급,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 같이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빠르게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 대표 주도로 지난 20일 공식 출범했고, 한국회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당을 탈당한 양 대표 주도로 지난해 8월 창당했다. 이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 ‘K-네움시티’ 건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뉴 하이로 프로젝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3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의 합당으로 제3지대의 통합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2일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은 지난 제3지대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전대화’ 협의체를 가동하기도 했다. 비전대화를 통해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한국회의당과도 합당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에 몸 담았던 정치인들이 단시간에 결합하기 위한 ‘철학적인 동질성’이 부족하고, 총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모두의 통합’은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제3지대 통합에 대해 “하나의 당으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게 첫 번째이며, 그제 안 되면 민주당 출신 신당, 국민의힘 출신 신당이 각각 3당, 4당으로 4파전을 하는 게 두 번째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민들이 자랑스러웠던 김대중의 민주당은 죽었다. 그래서 정권 교체 토대가 될 수권정당이 새롭게 세워질 필요가 있다”며 “김대중의 민주당을 현재에 맞게 재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김해나 기자 kroh@

민주 “軍 당직비 인상·사병 전화요금 절반 할인”

이재명 대표 김포 해병대서 국방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 1호를 24일 발표했다.

우선 사병과 부사관, 장교, 군무원 등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 여건을 증진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 훈련비 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정적인 국방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김포에 있는 해병부대를 찾아 직접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평일 3만원·휴일 6만원)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들에게는 종합건강검진비를 1인당 30만원씩 격년제로 ‘밀리패스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서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 대해서도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택수당 월 16만원과 전·월세 이차지원을 확대해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한다.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장병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82곳에 불과한 군 부무경력 학점인증을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1학기당 6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e-러닝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군 복무 기간 최대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강료 지원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1~4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안도 이번 공약에 담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nvironmental & Engineering Service Provider

주식회사 누리

(주)누리는 2014년 설립한 환경분야 전문회사로
지난 10여년 동안 더 맑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및 종합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양시 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양시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구례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원도군 신기공공하수처리시설

강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영남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나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한애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nuri 주식회사 누리
Environmental & Engineering Service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141, 제201호